

선비의 정신이 숨쉬는 충청북도! 21세기의 주역으로 우뚝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격조 높은
고장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본향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에서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며 21세기를
선도할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다.

충청북도 지역의 산업경제

충청북도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점차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2003년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IC 10억 달러 (24.9%), 무선전화기 9억 9천만 달러 (21.1%), 칼라 TV 2억 4천만 달러 (5.1%) 등 전기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칠레 FTA 체결 이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2002년 충북도내 총생산(GDP)은 20조 2천 800억 원으로 업종별 총생산 비중은 제조업이 44.9%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 28%, 건설업 9.2%, 농림어업 7.1%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까지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제조업의 생산은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 제조업, 제1차 금속, 조립금속 등에서 생산이 활기를 띠고 있고, 건설발주액에 있어서도 지난해 동기 대비 128.8%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건설경기 회복과 제조업의 수출이 충북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업 예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 경제 가운데 농업 인구가 도민 10명당 16명 꼴인 24만 1천여 명에 달하여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아 순차적인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의 기업 규모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 총 5,379개 업체에 113,298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그 중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1%도 안 되는 0.78%인 42개사이다. 92%인 4,947개사가 5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 (주)유니온김영길 안전관리자〉〉

국내 특수시멘트 분야의 선구적 생산기업으로써 건설 한국의 일익을 담당해 온 (주)유니



온의 김영길 안전관리자를 만났다.

솔직하고 당당해 보이는 김영길 안전관리자는 먼저 안전업무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입을 연다.

유니온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느 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라는 직책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김영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가 4년에 접어든다고 한다. 장교로 군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김영길 안전관리자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날 만난 김영길 안전관리자는 따뜻한 마음과 자기개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안전인이었다.

현장 순찰시 현장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이를 시정하지는 않는다. 바로 시정할 경우 근로자의 반발감에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며, 강압적인 시정조치는 한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스스로 시정하도록 배려하는 안전관리를 한다.

그리고 항상 현장 근로자를 대할 때 한 가정의 형처럼, 동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마음을 연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므로 업무적인 만남일지라도 업무적인 태도보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자세가 서로 정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안전활동을 함에 있어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의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김영길 안전관리자는 말한다.

또한 김영길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들은 많이 알아야 하기에 자기개발에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 1년에 1편의 논문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주)유니온에서 우수논문으로 5회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연구하는 안전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실한 자기개발과 탕크와 같은 추진력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주)유니온을 이끌고 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재해 1배를 달성하는 영광도 함께 할 수 있었다.

평소, 안전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김영길 안전관리자는 현장식구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장을 누빈다.

이처럼 김영길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소신껏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배경에는 김길환 공장장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평소 근로자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김길환 공장장은 (주)유니온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김영길 안전관리자에게 일임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안전 버팀목이다. 이는 무재해 1배 달성이



▲ 김 영 길 안전관리자

라는 영광으로 이어진 밑거름인 것이다.

향후 (주)유니온에서는 무재해 3배를 계획하고, 새로운 각오로 기필코 무재해 3배를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확고한 안전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김길환 공장장,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뚝뚝 뚫은 김영길 안전관리자가 있는 (주)유니온이 희망의 무재해 3배는 물론 무재해 10배까지 달성할 것 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화건설(주)박상국 안전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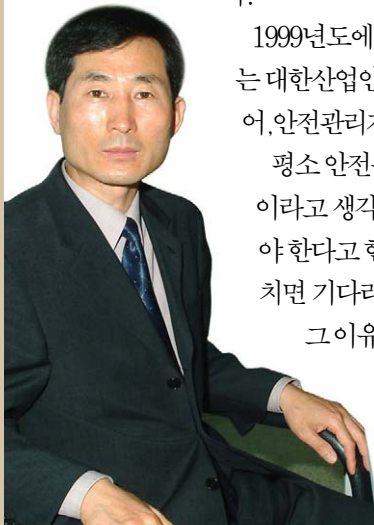
토목, 건축 상하수도 등 관급 공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는 대화건설(주)본사에 박상국 안전부장을 만났다.

2003년도에는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수주를 하였다는 대화건설(주)는 지난해까지 2년동 안 재해율 Zero를 달리고 있고, 올해도 그 기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이다.

모든 수주는 FQ점수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은 대화건설주식회사의 필수 조건 사항이라는 박상국 안전부장은 사고는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것이 우리 중견 건설회사라 며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말한다. 그래서 대화건설(주)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대기업 건설회 사에는 못 미치지만,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지는 어느 대기업 못지 않게 앞선다는 것이 박상 국 안전부장의 말이다.

이러한 열정 때문에 충북지역 건설회사중 가장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이라는 평을 유 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노동부로부터도 사고없는 현장으로 감독을 면제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대화건설(주)를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과 함께 박상국 안전부장 개인도 함께 인정하고 있 다.



▲ 박 상 국 안전부장

1999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상 수상과 함께 2003년도에 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상을 수상하였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 어, 안전관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진정한 안전인이다.

평소 안전은 한편으로는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이 안전 이라고 생각하는 박상국 안전부장은 안전에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 야 한다고 한다. 안전을 쉽다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 치면 기다리는 것은 사고밖에 없기에 쉽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세심함과 긴장 된 자세를 강조한다.

그러나 대화건설과 같은 중견 건설회사에서는 현 장 근로자 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털어 놓는다.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

되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므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우선으로 꼽고,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무재해 대화건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전현장 안전사고 Zero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대화건설(주)로 이끌고 있는 박상국 안전부장 뒤에는 이화련 사장이 있다.

안전은 회사의 손익과 관련짓기 이전에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기업을 발전할 수 있게 한 근로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도 현장의 안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화련 사장은 박상국 안전부장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안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 직원 연수교육에 있어서도 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 등 안전전문가를 초청해 연수일정의 2/3를 안전교육에 집중할 만큼 안전마인드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 이처럼 경영자의 지원을 받으며, 오늘도 무재해 Zero의 대화건설(주)를 창출해 가는 이곳이 사소한 안전사고도 찾을 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재난관리시스템

충청북도는 사고대책본부를 신설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계 기관, 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재난수습대책의 총괄조정과 수습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그리고 수습체계의 정립, 수습 기관간 역할분담 등 효율적 수습활동 대책 수립,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고대책본부는 지역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종덕기자〉

